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무료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상담실이 개설되어 있는 불교 사이트는 부대피어 외에 불교정보센터의 상담실과 달마넷 사이버 법당의 신형상담 코너 등이다.

달마넷의 경우는 신형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상담만 하고 있지만 불교정보센터는 자비의 전화 상담자들이 맡아 가정·부부·이성·종교·인생·사회·정신건강·신체건강·청소년 등의 생활상담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대피어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건강·교리·교육·법률·세무·인생·종교·신형상담 등 생활전반에 관련되면서도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있다.

사찰 홈페이지엔 '상담코너' 꼭 필요

부처님은 교화를 하면서 대가살법을 펼쳤다. 불자를 개개의 근기에 맞게 설법에 주는 것이다. 상담은 현대식 대가살법이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을 풀어주면서 부처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해결하는 방법 자체를 불교적인 방식으로 제안할 수도 있다. 특히 인터넷은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담을 원하는 이들이 좀더 진솔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된다.

불교 사이트 가운데서도 상담코너를 꼭 개설해야 할 곳은 사찰 홈페이지들이다. 홈페이지가 단순한 소개와 법회안내를 위해 개설되어 있다면 이는 죽은 홈페이지일 뿐이다. 상담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네티즌 불자들 뿐만 아니라 비불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열린 상담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스님들도 절에 오는 신도들만을 대상으로 상담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이버 사찰에서도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신형상담이 이뤄져야 한다.

김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대피어: www.buddhapia.com

“직지사앞 음식점 건축불허” 김천지원 판결

‘수행환경권’ 법적 인정

직지사 수행환경 분쟁이 직지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부(부장판사 이기택)는 4월 24일 판도씨가 직지사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등 가처분제에 대해 판도의 승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직지사 일주문 앞 음식점 신축은 어렵게 되었다.

판도는 직지사 일주문에서 56m 떨어져 있는 3177평방미터의 토지에 음식점을 지으려 했으나 직지사측이 공사를 저지하자 지난 해 10월 김천지원에 공사방해금지등 요청하는 가처분을 냈다.

이에 대해 김천지원 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이 완공될 경우 전통사찰이자 소속 승려들의 수행도량임과 동시에 관광명소로서 유지되고 있던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이 상당부분 훼손됨으로써, 사찰이 그동안 수행하고 있던 기능을 방해받게 된다”며 판도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95년 서울상상등 봉은사 앞 고층빌딩 높이를 제한한 서울지법의 판결에 이어 나온 두 번째 판례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공공시설의 환경권에 우선할 수 없으며, 사찰의 자연환경권을 물론 수행환경권까지 보호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지난 해 2월 건축법 8조 4항(공공시설물 주변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폐지됨으로써 전통사찰의 수행환경권 침해 및 분쟁 사례가 10여건에 이르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이번 판결로 환경분쟁을 겪고 있는 사찰의 수행환경권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사찰환경 침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 6조 2항(전통사찰 보존구역 인근에 건축물의 신축 또는 변경 허가를 하는 것이 전통사찰 보존 및 수행환경 보호 취지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판도는 김천지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구고법에 항소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사찰환경법 제정” 조계종, 친환경 불사 유도
조계종 총무원장은 도량으로서의 청정성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불사를 유도하기 위해 ‘사찰환경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부는 법안 작성에 들어갔으며, 법안에는 사찰 주지를 수행환경 관리인으로 위촉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총무원에서는 사찰환경보존을 위한 교육과 행정지원을 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또 친환경적인 불사와 오염물질 방출의 최소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와의 교류를 활성화해 환경분쟁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총무원장은 법안을 마련하는 데로 중앙총회에 법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종교별 대북창구 단일화”

김용재 교수, 종교지도자 금강산 순례 특강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의 남북종교교류와 관련, 종교별로 대북접촉창구를 단일화해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교육원 김용재 교수는 1일 종교지도자 금강산순례 특강장에서 “그동안 남북 종교교류가 결실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북한 종교단체의 선전기구화, 남북 종교인들의 일방적이고 경제적인 교류 시도 때문이었다”고 지적하고 △종교별 대북접촉창구 단일화 △불교 천도교 등 북한지역에 문화재나 관련 종교시설이 있는 경우, 이의 보존·보수 지원을

포교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종교인의 인식을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종교기구의 참여를 통한 방법이 효과적”이라며 세계종교회의나 제3국 중개 만남 등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종교지도자 금강산순례(1~4일)에는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7대 종교지도자 150여명이 참가했으며, 특별강연과 함께 남북평화통일기원 공동기도회, 통일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 주제의 토론회 등으로 진행됐다. 정성운 기자



등 밝히는 가족불심
은 누리에 퍼질 자비의 등에는 희망이 함께 걸린다. 봉은사를 수놓은 등에도 그런 중생의 마음과 부처님의 모습이 함께 걸려있다. 햇살이 화사한 봄날 불자 가족이 봉은사에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등을 달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통일 위해 큰 걸음”

조보련, 진각종에 메시지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박태화위원장은 4월 24일 진각종에 불기254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특별메시지를 보내왔다. 다음은 그 요지.

“부처님 탄생하신 뜻깊은 날을 맞으며 나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북녘 불자들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북녘불자들은 지금 이 시각 진각종단을 비롯한 남녘의 형제법우들과 더불어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하나로 뭉쳐 범불교적인 통일대정진을 다그칠 일념으로 총만되어 있습니다. 종단과 단체, 지역과 연령, 성별의 울타리를 뛰어내고 앞선 자는 자만하지 말고, 뒤진 자는 부지런히 뛰어 모두 함께 통일의 대장정에 들어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불교는 진정 겨레의 마음속에 자리잡는 불교로 될 수 있습니다.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어 역사에 길이 남을 통일대업을 이어갑시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세계의 종교지도자들이 유엔에 모여 세계평화선언을 발표한다. 세계평화선언은 8월 28일 유엔에서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열리는 종교 및 영성 지도자 세계평화대회에서 발표하며, 이 대회에서는 유엔 사무총장을 지인하는 ‘종교 및 영성 지도자 국제자문기구’도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세계평화대회 바와 제인 사무총장은 1~4일 서울을 방문.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한 종교·정치 지도자, 기업가를 초청해 서울 자문회의를 연다. 바와 제인 사무총장은 이 기간중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정대스님과 별도 만나 정대스님의 자문위원 위촉, 내년도 세계평화대회 서울 개최를 논의한다. 바와 제인 사무총장은 서울

해향스님의 학등 최우수상 '영예'

봉축위 령 경연대회

봉축위원회(위원장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는 4월 24일 불교회관중에서 등(영)경연대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부문 최우수상에 해향스님(한아 응선원 청년회 지도법사)이 출품한 학등(鶴燈·사진)을 선정하는 등 수상작을 결정했다.

심사위원회(위원장 원택)는 전통성(작품의 소재 및 재료의 선택)과 창의성, 실용성(정업부분) 등 3가지를 기준으로 심



사를 진행해 개인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에 해향스님, 우수상은 복두머니등을 출품한 유은숙씨, 특선에는 향아리등(김행자) 가마등(박영랑)을 선정했다. 학등은 학이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모습으로, 자전거

내년 대회 서울서 개최

세계의 종교지도자들이 유엔에 모여 세계평화선언을 발표한다. 세계평화선언은 8월 28일 유엔에서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열리는 종교 및 영성 지도자 세계평화대회에서 발표하며, 이 대회에서는 유엔 사무총장을 지인하는 ‘종교 및 영성 지도자 국제자문기구’도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세계평화대회 바와 제인 사무총장은 1~4일 서울을 방문.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한 종교·정치 지도자, 기업가를 초청해 서울 자문회의를 연다. 바와 제인 사무총장은 이 기간중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정대스님과 별도 만나 정대스님의 자문위원 위촉, 내년도 세계평화대회 서울 개최를 논의한다. 바와 제인 사무총장은 서울

세계평화대회는 역사상 최초로 전세계의 저명한 종교 및 영성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평화 정착과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의 세계평화대회에 이어 내년에는 이 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대회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과 종교 및 영성 지도자들의 역할과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세계평화대회에는 분열을 예방하고 증식시키자는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열리는 것이며, 스리랑카의 미하 고사나드 스님, 인도의 불교운동가 아리아라트네, 넬슨 만델라, 지미 카터 등이 국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연꽃피는 세상을 꿈꾸며

새로운 느낌,
젊은 방송이 되겠습니다.
꿈과 희망,
미래를 열어 가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정다운 친구,
친근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정직한 소리,
깨끗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BBS 불교방송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대표(02)705-5114/FAX(02)705-5229
후원회 ARS전화 (02)700-0108

개국 10주년
www.bbsfm.co.kr

서울 FM101.9MHz
부산 FM 89.9MHz
광주 FM 89.7MHz
대구 FM 94.5MHz
청주 FM 96.7MHz